



Un Jour de 1911

앵주르 드 1911

100% 그랑크뤼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앙드레 끌루에 시그니처 샴페인



+ 당도 1 2 3 4 5

+ 산도 1 2 3 4 5

+ 바디 1 2 3 4 5

Type	스파클링 와인
Country / Winery	프랑스 > 샴페인 / 앙드레 끌루에
Grape Variety	피노누아 100%
Capacity	750ml
Food Matching	캐비어, 해산물, 크림소스를 가미한 닭고기요리

Information

100% 그랑 크뤼 부지에서 재배한 피노누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황의 것만을 블렌딩해 만든 시그니처 샴페인. 극소량으로 생산해 전세계 샴페인 수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샴페인 중 하나로 꼽힌다. 장미꽃잎, 재스민 등 포도품종과 숙성기간에서 배어나는 다양한 향을 즐길 수 있으며 순수한 과일 고유의 캐릭터와 우아한 질감이 우수한 샴페인의 퀄리티를 잘 보여준다. 로버트 파커가 “균형미와 복합미를 고루 갖춘 샴페인”이라고 표현했다.

Awards

+ Robert Parker 93+점 “Exceptional”

Tip

샴페인이란 프랑스 샹파뉴 지방에서 양조한 스파클링 와인을 일컫는 고유명사이다. 스파클링 와인의 지존이자 반짝이는 별, 진주목걸이에 비교될만큼 우아하고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준다.